

농심, 2030년 매출 7.3조 목표... “글로벌 톱 브랜드로”

신라면 40주년 글로벌 포럼

조용철 대표 “韓, 가장 세계적 맛 글로벌 넘버원 될 것이라 믿어”

누적 매출 20조, 판매량 425억개 매출 40%, 美·日 등 해외서 발생 해외매출 비중 60% 이상 확대 목표



(왼쪽부터) 신라면 오리지널, 로제, 골드, 툼바.

농심 신라면이 누적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K-라면의 새 역사를 썼다. 1986년 출시 이후 40년간 대한민국 1등 자리를 지켜온 신라면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로벌 ‘탑 브랜드’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조용철 농심 대표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신라면 40주년 글로벌 포럼’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은 시대에 따라 의미를 확장해 온 브랜드”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故 신춘호 회장은 한국의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며 “신라면은 언젠가 글로벌 넘버원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탄생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농심은 출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의 누적 매출액(2025년 기준)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누적 판매량은 약 425억 개로, 면발 길이를 모두 이으면 지구와 태양을 약 6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주목할 점은 성장의 축이 글로벌로 이

동했다는 것이다. 누적 매출의 약 4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심은 미국 1, 2공장에 이어 최근 녹산 수출전용 공장과 러시아 법인 설립 등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며 ‘K-라면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조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그룹 매출 7조 3000억원 달성, 해외 매출 비중 6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인스트림 채널 확장과 물류 거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심은 신라면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신제품 ‘신라면 로제’를 한국과 일본 시장에 동시 출시한다. 신라면 로제는 ‘신라면 툼바’에 이어 소비자들의 모디슈머 레시피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심규철 농심 글로벌용철 농심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40주년 기념 신제품 ‘신라면 로제’ 우수·치즈 첨가 레시피 바이럴 주목

100여개국에 최단시간 유통 목표 케데헌·에스파와 브랜드경험 제공

서 열린 신라면 출시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발마케팅부문장은 “로제 파스타에 고추장을 가미한 한국적 매력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소구할 것”이라며 “신라면이 진출한 100여 개국에 최단 시간 내에 유통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로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유나 치즈를 넣는 레시피가 글로벌하게 바이럴 되는 점에 주목했다”며 “농심 발효연구소의 기술력이 담긴 고추장을 토마토,

조용철 농심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라면 출시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크림과 조합해 새로운 ‘K-로제’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라면은 제품을 넘어선 ‘문화 아이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파트너십, 글로벌 엠버서더 ‘에스파(aespa)’ 발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 거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체험 매장 ‘신라면 분식’을 오는 6월 서울 성수동에도 선보인다. 조대표는 외식 사업 확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체인 사업보다는 한국의 모디슈머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가치 전달이 우선”이라며 “수도권에는 그날 만든 라면을 판매하는 등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대표는 내수 시장을 놓고 “국내 시장은 양적 팽창보다 고급화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 국물 위주의 유탄면을 넘어 건면파스타, 볶음면 등 모든 ‘누들’ 영역에서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대해서는 “제조사로서 원가 압박 요인이 상당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라면 누적 매출 20조원은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해 왔음을 증명하는 기록”이라며 “글로벌 식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이번 40주년을 기점으로 신라면을 ‘한국인의 정情’이 담긴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보편적인 식문화 브랜드로 인격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정보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통신3사, 보안분야 4800억 투자

오는 9월부터 과징금 대폭 상향 KT, 정보보안실로 보안조직 통합 SKT, CISO 최고경영장 직속개편 LG U+, 보안전문팀 꾸려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통신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신사를 겨냥한 해킹과 유심 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면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낼 경우 조건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한 3%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위반을 반복했거나,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유출 사고 등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경영진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한정했지만, 이제는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다. 유출 사고 범위도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훼손 및 시스템 마비까지 범위에 포함됐다. 보안 사고가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통신업체들은 국민 대부분의 실명 기

반 개인정보와 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회선 수는 약 5700만 개로 인구 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해커가 심 스와핑(SIM Swapping) 수법으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유심(USIM) 인증키를 복제하면 비대면 대출이나 금융 계정 탈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 업종보다 과징력이 크다.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가입자 2700만여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한 이유다.

전국에 설치된 수십만대의 소형 기지국(팜토셀)도 보안 위험 요소다. 통신3사가 현재 음성·데이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별도로 설치해 놓은 팜토셀은 약

26만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커가 인증서 등을 복제해 팜토셀을 가짜 기지국처럼 만들고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 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약 2억4000만원 가량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3사는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체계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KT는 올해 보안 조직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최고경영진이 직접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SK텔레콤도 최고보안책임자(CISO)를 최고경영자 직속 개편했다. LG유플러스는 화이트해커 등 보안 전문팀을 꾸려 대응한다.

보안 투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통신3사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약

27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800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랜섬웨어 등 신종 해킹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킹 수법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이를 기업 차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후징벌적인 책임전가만 될 뿐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서버 침입 수준에서 금융 피해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보안업계의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



metro

靑, AI 해킹 대응 ‘차세대 사이버보안 방안’ 논의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 진행 국가적 사이버 안보대응 역량 강화

청와대가 ‘미토스(Mythos)’ 등 인공지능(AI)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는 13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안점검회의는 미토스와 같은 AI 모델의 해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토스는 미국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개발한 사이버보안·해킹 특화 AI 모델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하는 공격 성능이 뛰어나 일반 민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모델에 따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안보실은 민·관·군 주 관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주관부처가 위협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AI 모델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형 AI 및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대·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취약점 패치 등 신속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오현주안보실 3차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보안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산업과 데이

터 보안 체계를 공고히해 국가적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